

정후식칼럼



논설실장·이사

‘불사조’일 것만 같았던 김홍빈 대장은 끝내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브로드피크(8047m) 정상에 오른 뒤 하산 도중 실종된 그의 생환을 염원하는 국민이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헬기 수색에도 정확한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산악인장’으로 장례가 진행됐고 그의 영정은 무등산 문빈정사에 안치됐다.

김 대장이 장애인 동반가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座) 완승이라는 기적의 드라마를 쓴 지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났다. 한데 금방이라도 그가 너털웃음을 지으며 돌아와 ‘히말라야의 기를 나눠 주겠다’며 조막손을 내밀 것만 같다.

도전의 의식과 연대 그리고 희망 나눔

김 대장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1997년 유럽 최고봉 엘브루즈(5642m) 원정을 나설 무렵이었다. 그때 산악인에게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열 손가락이 없는데도 빠른 노력으로 다시 고산 등반을 시작한 그의 투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앞서 1991년 맥킨리(6194m) 조난 사고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던 것이다. 이후 세계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들을 오르는 과정을 즐긴 취재·보도하면서 그의 한없이 김 대장의 손 역할을 충실히 해아 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양말 신기, 등산복 지퍼 올리기, 신발 끈 묶기, 침낭 및 고소용 원피스를 압축해 주머니에 갈무리하기, 텐트 치기 등... 김 대장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들을 거드는 데 바깥대기 일주였다.

2008년 말 한 달여의 일정으로 남극 대륙 최고봉 빈슨 매시프(4897m)에 도전했을 때는 그의 자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오르기도 했다. 7대륙 최고봉 등정을 마무리하는 참으로 의미 있는 동반이었다. 원정대장인 그를 제외하고 유일한 대원이었던 기사는 동반 과정에서 김 대장의 손 역할을 충실히 해아 했다.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양말 신기, 등산복 지퍼 올리기, 신발 끈 묶기, 침낭 및 고소용 원피스를 압축해 주머니에 갈무리하기, 텐트 치기 등... 김 대장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들을 거드는 데 바깥대기 일주였다.

은펜칼럼



이병우
대한민국산악협회장교수

“가족은 가장 치사한 집단이다.” 세대간의 소통을 위한 포럼 중에 나온 이야기이다. 한 발표자가 자신이 수행한 독서 모임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에 대해 토론을 했는데 MZ 세대의 한 회원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더라는 것. 여러 내용 중 이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주 솔직하고 우리 시대의 단면을 잘 나타내 주는 말처럼 느껴진다. 그냥 지나치기엔 걸리는 것이 많은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지만 유행어는 아니다. ‘요새 것들’은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데 나는 차마 저런 말을 못했기 때문일까? 가족이라는 집단이 치사하게 여겨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얼마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업무 차 방문한 회

기고



박영길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장

“조선수군은 대들보를 뺀아 대포에 넣어 쏜다” “조선수군이 쏘는 화살은 통나무만 하다” 임진왜란 당시 사용되었던 대장군전(大將軍箭)의 이야기다. 이순신 장군은 “먼저 거북선으로 치고 들어가 용의 입으로 현자 절환을 치소게 하고 지지절환과 대장군전을 쏘아 왜선을 깨뜨리자, 뒤따르고 있던 여러 전선들도 절환과 화살을 교대로 쏘았다”면서 대장군전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수군의 임진왜란 중군기인 ‘고려선전기’ (高麗船戰記)에는 “조선군의 대형 화살에 맞아 일본 배의 망

‘김홍빈 정신’ 이어 가려면

는 없는 일. 그러나 방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그제야 김 대장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착각이자 오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은 심한 자괴감에 텐트에 앉드려 장문의 반성문을 쓰기도 했다. 이심전심이었을까. 김 대장도 이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두 손이 있을 땀/ 나만을 위했습니다./ 두 손을 잃고 나서야/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새로운 손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극에서’라는 부제가 달린 ‘손’이라는 제목의 이 시에는 김 대장의 삶에 대한 태도와 등반 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 이후 그는 해외 원정 때마다 이 글을 계획서 표지에 실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곤 했다.

등반가들 사이에는 ‘고도(高度)보다는 태도(態度)’라는 말이 있다.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 정상에 도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 대장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모든 것이 갖춰진 도전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천 번을 시도하여 움켜잡는 것이 도전이다.” 손가락을 모두 잃고 폐수종과 뇌부종까지 겹쳐 고소 적응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담금질함으로써 삶을 변화시켰다. 그리하여 장애인으로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Terra Incognita)을 개척해 나갔다.

김 대장이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모두 오르는 데는 24년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 두세 번 시도한 경우까지 합치면 원정 횟수만 35차례나 된다. 이처럼 단대한 도전을 쉽게 이어가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불굴의 의지와 투혼이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다음 목표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브로드피크 원정을 떠나면서도 기자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다음에는 북극점에 꼭 함께 갑시다.” 그는 그때 이미 지구 3대 극점(極點)까지 모두 도달하는 ‘산악 그랜드슬램’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담대한 도전이 가능했던 또 하나의 원동력은 아마도 연대 의식일 것이다. 산악 선구배들이 그의 손이 되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처럼 그 역시 정상에 오른 것을 ‘나의 등정이 아닌 모두의 등정’으로 여겼다. 지역 사회와도 늘 함께 호흡하려 했다. 2017년 로체(8516m) 등반 때는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5월 18일을 등정일로 잡았다. 그리고 정상의 희망한 공기 속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렀다.

“가족은 가장 치사한 집단”

사에서 짐작 식사를 하던 중 20대 인턴 직원이 말한 내용이다. 미국 유행 중 잠시 귀국하여 시간대 인턴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자신을 놔두지 않는다며 불만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어서 독립하고 싶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사하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역시 ‘치사하다’는 것이다. MZ 세대는 이런 걸 치사하다고 하는구나. 정말 ‘복세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를 줄여 이르는 말)다운 생각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복세편살’은 정말 멋진 말이다. 그저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다. 그리고 ‘마싸’도 좋다. 마싸는 마이사이다(My Sider)의 줄임말로 나만의 기준에 따라 확고한 삶을 사는 것을 지칭한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자신의 힘으로 한다면 더욱 그렇다.

정년 가족이란 무엇일까? 21세기에 가족이라는 집단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 일찍이 앨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를 통해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집단을 선정한 바 있는데, 첫 번째가 기업이고, 두 번째가 기업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세 번째가 가족이었다. 가족이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른 집단으로 대두될 지는 앨빈 토플러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1인 가구 증가 속도를 보면 가족에 대한 관점, 형태의 변화는 거스를

가시나무의 새로운 가치

대와 같판, 방패가 모조리 부서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수적인 우세를 과시하려고 때를 지어 몰려오는, 재질이 약한 삼나무로 만들어진 왜선들은 멀리서 커다란 통나무를 쏘아 보내는 조선수군의 대형 화살(대장군전)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산도 대첩과 안골포 해전에서 대패한 일본군 구기요시타카가 조선수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 원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해명하기 위하여 대장군전을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구기 가문에서는 지금도 가문의 보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해군사관학교에서 재현한 대장군전 실험 발사에서는 400m거리에서 화강암 틈새를 80cm나 뚫고 들어가는 기록을 남겼다. 대장군전은 국궁(國弓)의 화살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앞에는 쇠붙이로 무게를 맞추고 중간에는 날개를 달아 먼 거리를 날아가도록 하였으며 몸통은 단단하고 탄력이 좋은 가시나무로 만들었다. 천자총통에서 발사되는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나 세계수영선수권 등을 앞두고는 대회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응원했다.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라선 뒤에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러면서 도 가족에게는 만약에 자신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수색 활동으로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절대 무리한 구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떠나기 전에 당부했다고 한다.

김 대장은 또한 자신의 경험을 장애인 및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했다. 산에 오르고 싶어도 쉬 가지 못하는 그들과 산행을 함께하며 도전 정신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줌으로써 ‘희망 전도사’로 불렸다. 히말라야 원정 때도 장애인들을 참여시켜 한계 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몇 년 전부터는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김홍빈과 희망 만들기’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그의 꿈을 성원해 왔다.

영웅의 업적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김 대장이 그동안 초인적인 노력으로 이뤄 낸 성과는 그야말로 인간 승리라 할 만하다. 거기에 불굴의 도전 정신과 연대 의식 그리고 희망 나눔이 밑바탕이 되었다. 이를 ‘김홍빈 정신’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어 미래 세대의 귀감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우리 사회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정부가 그에게 최고 등급의 체육훈장인 청룡장을 추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장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 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그의 발자취와 업적을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도 이에 공감하며 지원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는 세계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뒤 2011년 안나푸르나 남벽 등반 도중 실종된 박영석 대장을 기리는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념관에는 당연히 김 대장이 사용했던 장비나 동반 영상·사진을 볼 수 있는 전시실이 있어야겠지만, 국제대회를 치를 인공암벽 경기장과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여기에 김 대장이 늘 소망했던 히말라야 고고체험용 감압실(減壓室)이나 산악문화관 그리고 안전체험관까지 갖추면 더욱 좋겠다. 사회 양극화와 코로나 확산으로 좌절하기 쉬운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도전으로 희망을 함께 나누는 ‘김홍빈 정신’ 아니겠는가.

수 없는 듯하다. 그럼 가족은 어떤 형태로 변할까? 영화나 드라마에 비치는 가족 이야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전문가에 의하면 “미국에서 성공적이고 장기 방영된 TV 시리즈는 모두 가족에 관한 것들”이라고 한다. 여전히 “가족은 소우주”라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의아했다. 지금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나? 더구나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한 미국 사회에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개념은 좀 다르다. “가족은 소우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존재 방식이 다르다. 꼭 혈연이 아니라도 가족 같은 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프렌즈(Friends) 시리즈는 가족 같은 친구들 이야기이고, 영국과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더 오피스(The Office) 역시 가족 같은 회사 동료들 이야기라는 것이다. 진짜 가족 관계보다는 가족 아닌 가족 같은 관계를 더 좋아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 사회인데 미국처럼 저렇게 변할까? 최근의 변화 추이를 보면 한국이라고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1인 가구의 증가와 MZ 세대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봤을 때는 더욱 그렇다.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

社說

코로나 확산 지속 병상 추가 확보 서둘러야

코로나 19의 4차 대유행으로 연일 전국적으로 1000~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역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의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의 절반가량이 비어 있으나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의 경우 가동률이 60%를 넘어선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모두 4가지로 분류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환자 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다 등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산소요법이나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병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중증환자 치료 전담 병상 32개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20개(62.5%)로 12개 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증 치료병상의 경우 빛고을전남대병원에 81개 병상이 설치돼 있는데 이중 34개(42%) 병상이 사용 중이며 나머지 병상은 47개로 파악됐다. 문제는 지난 6월 말과 비교할 때 50일 만에 지역 내 병상 가동률이 세 배 이상 급증한 데다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40명을 웃돌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등 타 지역 접촉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여파로 7~8월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수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위협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 확산세로 볼 때 병상 수가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당국은 사망률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 권역 간 연계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폭염에 폭우까지 잇단 재해에 명드는 농심

지구온난화로 예측 불허의 기상재해가 빈발하면서 전남 지역 농어민들의 마음이 망들리고 있다. 올 여름에만 폭우·폭염·고수온으로 수백 억 원대의 농수산물 피해를 입은 가운데 수확기를 앞두고 또다시 가을잠마로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기는 지난달 초부터 전남 지역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단 이틀간 500mm의 물 폭탄성 강맛비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농작물 61억 원, 축산 16억 원, 수산 분야 696억 원 등 생물 분야에서만 모두 765억 원의 피해가 났다는 게 전남도의 조사 결과다. 이어 찾아온 폭염도 많은 생체기를 남겼다. 평년 수온을 5도 이상 웃도는 30도 이상의 고수온 상태가 수일간 지속되면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가 컸다. 용존 산소 부족 등으로 지난 8일까지 여수와 완도 지역 17개 어가에서 모두 139만 4000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해 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이 같은 기상재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점이다. 기상청의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호우와 태풍이 농작물 수확기에 집중되면서 전국의 침수·낙과 피해가 전년의 1.7배에 해당하는 12만 3930ha에 달했다. 2018년에는 고수온이 43일이나 지속돼 전남 해역에서만 5400만 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도 농작물과 수산물은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가 실제 피해 규모보다 턱없이 적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그나마 정부의 피해액 산정에도 생물은 일절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상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차를 시장에 낼 때 1호 차 주인공을 신중하게 선정한다. 1호 차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 신차 판매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전엔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면서 공짜로 차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호 차 주인공을 결정했다. 주로 당대 최고 인기를 누리는 배우나 탤런트를 선택했다.

가이치는 2006년 뉴 오피러스를 출시하면서 최수종·홍희라 부부를 홍보대사로 임명한 뒤 1호 차를 전달했다. 같은 해 현대는 베라쿠르즈 1호 차 주인공으로 영화 ‘왕의 남자’로 인기를 누린 배우 정진영을 선택했다. 2009년에는 장동건이 신형 YF쏘나타 첫 차의 주인공이 됐고, 현빈은 2011년 신형 그랜저 1호 차 주인공이 되었다. 현빈의 팬들은 ‘현빈이 장동건보다 한 등급 위’라고 즐거워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고객 인기투표로 1호 차 주인공을 뽑았는데,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인기 절정이었던 데다 당시 해병대 입대를 앞두고 있어 이미지가 좋았던 현빈이 선택됐다. 근래에는 차량 구입 사전 예약자 가운데 차량 컨셉트와 잘 맞는 고객을 1호 차

주인공으로 선택하는 추세다. 자동차회사 입장에서선 사전 예약자 가운데 유명인이 있다면 금상첨화다. 가이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셀토스는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가진 프로 골퍼 안혜진을 1호 차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삼둥이 아빠’인 배우 송일국이 가이카니발 7인승 리무진의 주인공이 되고, ‘당구 여신’ 차유람이 박스카인 닛산 큐브의 첫 차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이 1호 차를 받은 사례도 있다.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인 아반떼의 남자로 인기를 누린 환경부에 전달돼 장관 전용차로 이용됐다. 창원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스펙트EV는 창원시가 1호 차를 받아 관용 차량으로 사용했다. 다음달 15일 출시되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SUV인 ‘AX1’의 1호 차 주인공이 누가 될지 관심이다.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로 탄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하다는 의견이 있다. 올림픽 3관왕인 양궁의 안산 선수와 BTS 멤버 중 광주 출신인 제이홉도 거론된다. 누가 됐든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일이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汝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